10월 광주서 '빛의 아리랑' 펼쳐진다

■ 市-문광부 공동 '세계 아리랑 축전' 세부 프로그램 확정

전야제·주제공연 '아리랑'·'아리樂 페스티벌' 등 다채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아리랑 축전'의 세부 프로그램이 확정됐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21일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아리랑축전 2차 추진위원회(위원장 고은·시인)를 갖고 2012년 세계아리랑축전의 세부 일정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주최하는 이번 축전은 국비 5억 시비 4억 등 모두 9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10월 12~1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및 인근 야외 광장 등에서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야제와 주제공연 '아리랑', 국제자유음악제 '아리락(樂) 페스티벌' '아라리요謠(ArariYo) 시민한마당'이다.

12일 전야제 행사는 '한민족 아리랑 대전-2012 겨레의 아리랑'을 주제로열린다. 일본·중국·러시아 동포 가수들의 해외 아리랑 및 각 지역 아리랑보존회와 어린이합창단이 어우러지는 아리랑대합창, 국내 국악가수와 국악명인 초청 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김명곤 예술감독이 진두지휘하는 주제공연 '아리랑'은 총체극 형태의 무대공연 작품이다. 제1장 '사랑의 아리랑', 제2장 '님을 위한 아리랑', 제3장 '겨레의 아리랑'에 이어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광주의 정서를 담아 창작되는 새 아리랑인 '빛의 아리랑'이 펼쳐진다.

공연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유명 예술인들이 참여하며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무용단, 시립국극단 단원들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아리락 페스티벌'은 자유·인권·평화의 광주 정신을 되새기는 무대다. 윤도현, 장기하, 한영애 등의 국내 음악인과 외국의 유명 저항음악인들을 섭외 중이다.

'아라리요'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를 위한 아리랑교육체험전, 전국의 아리랑 관련 단체 및 예술팀이 참여하는 문화난장 형태의 '천하 아리랑 광대뎐', 아리랑 거리공연패 및 길거리 게릴라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다.

아리랑 축전을 홍보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전국 공모를 통해 '아리랑 밴드'를 결성,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리랑'을 주제로 한 학술심포지엄도 개최된다. 세계아리랑축전의 위상 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아리랑 관련 연구 쟁점을 짚어보고 아리랑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망 등을 살펴보는 한편 아리랑을 소재로 한 콘텐츠 창작, 월드뮤직 전략 등 미래지향적인 연구 성과들이 발표된다.

한편 오는 6월15~17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2 아리랑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으로 있어 프로그램 차별성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리랑세계화추진위원회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 행사는 K팝 열풍에 힘입은 대중문화와 전통 아리랑이 융·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탄생한 다양한 아리랑을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인순이·씨스타·양방언·밀레니엄 오케스트라·국악인 오정해 등이 참여하는 야외 대중 공연이 주된 프로그램이며 어린이와 가족 대상의 관람객들을 위해 전통놀이를 소재로 한 가족극 '으라차차 아리랑!', 야외체험행사 '왁자지껄 아리랑' 등도 마련된다.

학술행사 '문화 속의 아리랑, 세계 속의 아리랑', 아리랑의 생성과 변화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만나보세 만나보세 아리랑 만나보세'도 진행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세계아리랑축전 주제공연에 참여하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칸 영화제, 홍상수 감독 '다른나라에서' 공식 상영

정교하면서 아름다운 영화… 뜨거운 관심

칸 영화제 리포트

칸=서민정 객원기자

21일 중간평가 8위

수장작은 27일 발표

지난 21일(현지 시간) '다른 나라에서' 시사회에 참석한 문소리, 홍상수 감독, 이자벨 위페르, 윤여정, 유준상(왼쪽부터).

제 65회 칸 영화제 경쟁부문 출품작인 홍상수 감독의 '다른나라에서'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오후 4시 칸 뤼미에르 극장에서 공식 상영을 가졌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레드 카펫 행사에서 홍상수 감독은 프랑스 연기파 여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윤여정, 문소리, 유준상 등 주연배우와 함께 사진 촬영을 갖고, 관객들의 기립 박수를 받으며 극장에 등장했다.

1시간 29분 동안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관객석에서는 종종 박장대소가 터졌다. 유준상이 어설픈 영어로 이자벨 위페르에 추파를 던질 때, 위페르가 자신과 불륜 관계인 문성근을 따라 종종 걸음으로 걸어갈 때 특히 반응이 좋았다. 언어는 유머의 국경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자벨 위페르는 "홍 감독의 시나리오는 즉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며 한국에서의 촬영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채로 혼자서 한국에 도착했고, 이 모험이 내게는 마치 마법과 같았다"고 말했다.

현지언론 '리베라시옹'은 "이 영화에서 홍상수는 반복을 증폭시키면서 시각적 효과는 줄이는 변화를 꾀했다"며 "한 문장 속의 단어들처럼 장면들이 서로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며, 마치 시와 같다"고 평했다.

Excessi지 역시 "홍상수는 매번 같은 영화를 찍지만, 항상 아름답다. 무척 행복한 영화"라고 적고 국경을 넘나들며 열연을 펼친 이자벨 위페르에 호평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평가는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다른나라에서'는 전세계 평론가들의 평가를 집계하는 '스크린 인터내셔널' 데일리지에서 4점 만점에 2점을 받았다.

한편 르 피가로 지의 중간 평가에서는 12점 만점에 4점을 기록하며 21일까지 공개된 영화 11편 중 공동 8위를 기록했다. 21일까지 총 12편의 영화가 공개된 가운데, 프랑스 언론은 자국 감독 자크 오디아르의 '재와 뼈'와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러브'에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지난 16일 개막한 칸 영화제 경쟁부문 수상작은 현지시간으로 27일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칸 영화제는…

'빗 속의 축제'

올해 칸 영화제는 '빗 속의 축제'로 기록될 듯 하다. 개막 이후 매일 비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폭풍우가 몰아친 20일 저녁에는 메인 상영관 중 하나인 '60주년 기념관'의 지붕이 폭우로 손상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쏟아지는 비만큼이나 기록들도 풍성하다. 칸 시는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 10만명의 관광객이 추가로 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 예상 관광객은 20만 명으로 칸 인구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미 4만명의 프로페셔널 뱃지를 발급받았으며 4600명의 기자가 방문했다.

티에리 프리모 집행위원장은 "올해 영화제를 위해 1779편을 심사했으며, 그 중 50여편의 영화만 'oui'(긍정) 라는 대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 영화는 홍상수 감독의 '다른나라에서'와 임상수 감독의 '돈의 맛'이 초청됐다.

호남예술제 합창·합주 입상자

합창 입상자
〈심사위원〉
김철웅(목포대 교수)
윤영문(광주합창연합회장)
◇ 중창(중등부)
▲ 최고상
1 꿈을 품은 메아리 중창단(박수진 외 7명, 지도교사:김지연)
◇ 합창(초등부)
▲ 최고상
1 남평(김민지 외 45명, 지도교사:임향진)
▲ 금상
2 광주송원(김묘진 외 62명, 지도교사:김지연)
▲ 은상
3 금부(전지은 외 50명, 지도교사:안미영)

합주 입상자
〈심사위원〉
배상철 (목포대 교수)
김연주 (초당대 교수)
◇ 중주(초등부)
▲ 최고상
4 바이올린 뮤직스쿨(조은 외 3명, 지도교사:김상미)
▲ 금상
5 살레시오(김유진 외 9명, 지도교사:김춘수)
▲ 은상
1 살레시오(김유민 외 6명, 지도교사:김춘수)
2 불로(문지영 외 17명, 지도교사:문미정)
3 태봉(나혜연 외 9명, 지도교사:박정하)
6 광주계림(강민석 외 7명, 지도교사:이유승)
◇ 관현악합주(초등부)
▲ 최고상
1 광주송원(이채은 외 65명, 지도교사:윤상민)
◇ 관악합주(초등부)
▲ 최고상
2 연제(김소진 외 47명, 지도교사:오화연)
▲ 금상
1 광양제철(손수민 외 52명, 지도교사:최창준)
◇ 관악합주(중등부)
▲ 금상
1 양산(조주형 외 39명, 지도교사:박영근)
2 송정(백지연 외 40명, 지도교사:김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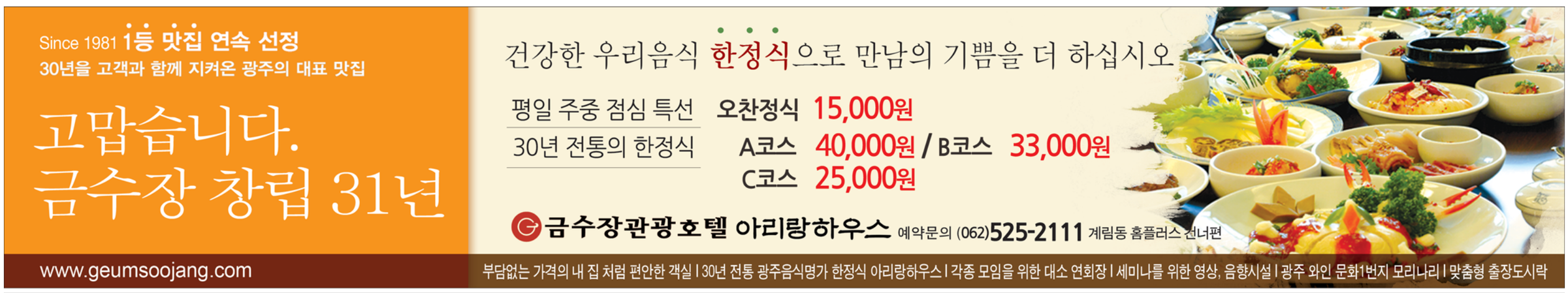
※최고상 수상자는 컬러 인물사진 2매를 5월 29일까지 본사 문화사업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문화재단, 광주 모든 축제정보 조사 '축제탐정' 진행

광주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들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정보조사 활동이 본격화된다.

광주문화재단은 도시브랜드축제 '페스티벌 오! 광주' 사업의 하나로 광주지역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 정보를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축제탐정'제도를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주지역에서 참가한 축제의 개요와 프로그램, 좋은점과 바라는 점 등을 적어 매달 1일 하루 동안 페스티벌 오!광주 공식 홈페이지(http://festivalo.kr)의 축제탐정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축제 탐정은 12월까지 매달 2~5명씩 총 30명을 뽑게되며 선정된 시민에게는 원고료와 함께 '2012페스티벌 오!광주'의 자유입장권 2매를 지급한다. 문의 062-670-7463.

/김미은기자 mekim@